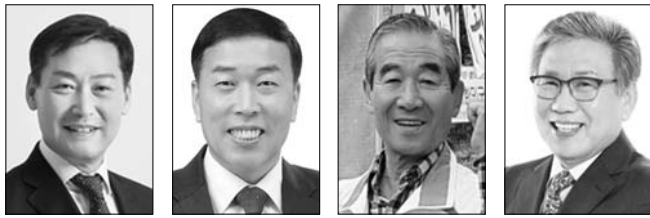


# 진안군수 재선거 4파전

### 전춘성·김현철·송상모·이충국 예비후보, 선거전 본격 돌입 전망

오는 4·15 총선과 함께 실시되는 진안군수 재선거 후보가 4파전 양상으로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안군수 재선거 예비후보가 지난 9일 전춘성 전 진안군행복복지국장 등으로 결정됨에 따라 진안군수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3명 등 4명의 후보가 맞붙게 됐다.



전춘성 김현철 송상모 이충국

방선거에서 진안군수에 도전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번에 두 번째 도전했다.

무소속 송상모 예비후보는 군산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북도 사회복지과장, 진안군 부군수로 장년퇴임하고 진안군사회복지협의회장을 15여년간 역임하며 봉사활동을 펼치다 군수 선거에 도전장을 냈다.

무소속 이충국 예비후보는 군산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라북도의회 6, 7대 의원을 역임하고 더불어민주당 완주, 진안, 무주, 장수지역 원외 부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도전장을 냈다.

# “주민안전 위한 적극행정 펼쳐야”

###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 “윤수종사자에 마스크 무상공급 정책 지지”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진안군수 예비후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무상공급으로 주민안전을 위한 적극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춘성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진안군 관내 윤수종사자에게 마스크를 무상공급하고 마스크 기부운동을 펼치고 있는 진안군의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작년 말 기준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8,61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노약자층이 많은 지역이다.

이에 전춘성 예비후보는 “주민과 대면접촉이 많은 농어촌버스, 택시 등 윤수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최우선적으로 보급한 진안군의 결정에 큰 박수를 보낸다”며 “대중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과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나가자”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치매환자 기초 돌봄 서비스 시행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 공백이 우려되는 치매어르신 가정에 대해 기초 돌봄 서비스 시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 치매안심센터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운영 중단 장기화로 홀몸 노인과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가 일부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컴퓨터 프로그램 참여노인과 고위험군 치매노인에게 안부 전화를 실시하여 건강상태와 생활 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전화 연락이 되지 않는 치매노인의 경우 가족과 지역사회 연락 체계를 이용하여 최대한 기초 돌봄 보장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일선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 등으로 치매환자의 돌봄에 필요한 물품을 제때 지원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직원 안전 확보와 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감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 상황에서 대상자 치매 상태에 맞는 조호 물품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난 13일 무주군 한우협회에서 성금 1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했다.

# 무주군 한우협회·무주읍 발전회, 성금 기탁

무주군 내에 ‘코로나19 함께 이겨 나가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도움의 손길을 자처하고 있는 주민들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무주군 한우협회(회장 김명섭)에서 성금 1백만 원을 무주군에 기탁했으며 12일에도 무주읍 발전회(대표 조용복)에서 성금 1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전했다.

무주군 한우협회 김명섭 회장은 “우리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어서

다행이지만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코로나19를 예방해 나가는데 우리협회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전했다.

또 무주읍 발전회 조용복 대표는 “아무리 힘들어도 주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서로를 보듬다 보면 길이 생길 거란 믿음으로 회원들이 마음을 모았다”라며 “특히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을 챙기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심갑수)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끝으로 5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8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진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했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을 청취했다.

201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도 선임했다. 대표 감사위원으로는 박관순 의원이, 민간위원으로는 김남기 전 군의원, 김명기, 전형욱 전 진안군청 공무원이 선임되었으며 2019년도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심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와 진안군수 재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빈틈없이 방역 업무를 추진하고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사랑의 마스크 기부운동으로 1350매 모금

진안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군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랑의 마스크 기부운동을 펼쳤다.

지난 9일부터 5일간 진행된 이번 기부운동에는 공무원과 방문자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1,350매의 마스크를 모금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져 지역 사회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마스크 기부운동이 전개되어 군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국가 재난을 극복하자는 훈훈한 기부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모금된 마스크는 진안의료원 의료진, 방역·소독지원 봉사팀, 군부대, 노인생활관리사, 복지사각지대에서 제외된 주민 등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자립공동체 무주 만든다

### 무주군,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에 선정돼 국비 3천만 원을 확보했다.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는 분산 지원되고 있는 공공서비스의 문제점을 줄이고 공공과 민간 부문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은 “모두가 함께하는 반디넝쿨”이라는 사업 명으로 스마일복지이카데미 운영을 통한 복지 길라잡이 양성

과 △1읍면 복지1촌 맺기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밝혀 호평을 얻었다.

군에 따르면 ‘모두가 함께 하는 반디넝쿨’은 지역 특성에 맞는 공공서비스 연계 모델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지역주민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지역문제를 자체 발굴·해결 방안을 도출해 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민력 향상, 지역공동체 기능 강화, 위기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을 복지이카데미 운영을 통한 복지길라잡이 양성’은 지역복지에 관심이 있는 주민을 참여 대상으로 마을복지 수요파악과 정부 복지정책 공유, 선진우수사례 분석, 견학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1읍면 복지1촌 맺기’는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가 주체가 되어 복지1촌 맺기 돌봄, 주민력 강화교육, 마을가꾸기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강장수 과장은 “주민들을 중심으로 민·관이 더욱 협력해 어려운 이웃을 찾고 돌보는데 더욱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한다

### 장수군, 주민생활현장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 선정

장수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지난 13일 장수군에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은 지역주민의 욕구와 지역특성에 따른 보건·복지·주거·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주민 생활과 연계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복지 증진 사업으로 전국 52개 지자체

가 선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민간인적안전망을 주축으로 지역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 ▲대상자들의 정기적 안부 확인, 위험 요인 발생 시 신고 ▲“명절 사랑의 음식 나눔 행사”, “복(福)꾸러미 나눔 행사” 등을 추진해 민·관이 유기적인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 지원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현한다.

이에 따라 군은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자체예산 포함, 총사업비 1억 원을 투입,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 군민 복지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장영수 군수는 “공모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및 시책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